

참여예산 장애인분과 월례회의 개최결과

★주무관	참여구정팀장	민관협치담당관

참여예산위원회 장애인분과 2017년 3차 회의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□ 회의개요

○ 일 시 : 2017. 4. 10.(월) 17:00~19:00

○ 장 소 : 주민참여위원회실(본관 7층)

○ 참석인원 : 위원 8명(배석 : 참여예산위원장)

※ 불참위원 : 신철민, 윤영신, 최서원, 최현정, 박연환

○ 회의안건

- 분과 모니터링 사업 선별 및 운영 방법 논의
- 2018. 참여예산사업 발굴 논의
- 은평구 참여예산제 개선방안(진단) 논의

□ 회의결과

○ 분과 모니터링사업 선별 및 운영방법 논의

1. 조편성 및 조별 사업 선별

- 1조 위원 : 김중열, 최서원, 이주필
 - ▶ <은평 봄봄축제>
 - ▶ <장애인 일자리 사업>
 - ▶ <은평구 복지공무원 수화교육>

- ▶ <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지원>
- 2조 위원 : 윤만호, 신철민, 박연환, 김원영
- ▶ <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>
- ▶ <장애인일자리 정보 한마당>
- ▶ <장애인단체 명절 위문사업 지원>
- ▶ <장애인 문화활동 지원>
- 3조 위원 : 윤진석, 서경자, 최현정, 하기돈
- ▶ <장애인과 함께하는 테마여행>
- ▶ <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지원>
- ▶ <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정보제공사업>
- ▶ <장애인 지원사업>

2. <2017. 은평 봄봄축제>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 검토

- 지난 해 장애인분과에서 실시한 <2016. 은평 봄봄축제> 모니터링 결과 공유

프로그램명	프로그램별 검토 및 보완해야 할 사항(의견)
‘어울한마당 장애공감 행사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안내요원이 부족하고, 화장실 사용이 불편함 ▪ ‘어울림 한마당’ 이란 주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음 ▪ 공간(부스설치)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 등
‘2016. 은평 봄봄축제’ 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좀더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열린공간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. ▪ 지하철 역사에 홍보도우미(안내요원)이 없었음. ▪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부족하였음. ▪ 어르신들의 소통의 공간 등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음

- 올해 운영되는 <은평 봄봄축제>는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,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참여하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

3.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가 발급하는 공신력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며, 기관 등 방문시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장애인분과의 방문사실을 공지하여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으면 함

○ 참여예산 사업발굴 논의

- 현재 부서사업으로 운영중인 ‘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’는 고장난 이동기기 운반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, 센터운영의 불합리한 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
- 이에 장애인분과에서는 고장난 이동기기를 운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, 공간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입장을 헤아려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수리센터 운영을 기획하여 ‘**찾아가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**’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

○ 은평구 참여예산제 개선방안(진단) 설문 작성 및 위원활동 평가

- 막연하게 위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3년 이상 위원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의 만남이 가장 큰 보람임
- 동 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운영시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홍보와 노력이 필요함
- 한편으로는 기존조직의 인적구성원을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
- 보다 많은 구성원이 나올 수 있는 회의시간을 잡는게 매우 힘들
- 본 예산 편성을 위한 분과회의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분과의 검토의견이 부서에 어떻게 전달되고 반영되는지 그 현황을 알기가 어려움이 있음
- 장애인분과에서 제안한 2017년 참여예산 실행사업 ‘우리동네 불편한 분들에게 휠체어를 빌려드려요’ 사업은 실행과정에서 제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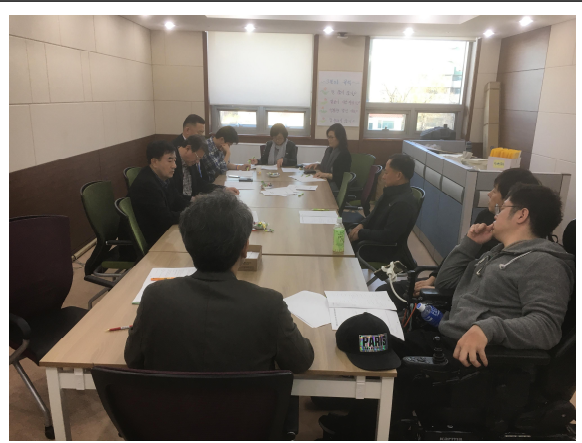
의도를 살리는데 있어서 제안자와 부서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실행에 문제가 있었음(보관함의 크기, 재질 등) ⇒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논의

- 참여예산위원회의 10개 분과는 개별적 운영특징이 있으므로 분과별 위원교육이 필요하고, 별도로 위원활동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치가 요구됨
- 참여예산위원회라는 틀에서 각 분과가 존재하나, 현재는 각 분과 중심으로 회의가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. 각 분과위원은 참여예산위원회, 더 나아가서는 주민참여위원회 차원에서의 분과의 위상을 생각하며 활동했으면 함
- 부서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나 그 절차에 참여해본 전례가 거의 없음
- 대다수의 평범한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쉽지 않은 용어때문으로, 주민의 눈높이가 고려된 홍보 문구가 필요함(예를들어 ‘은평구 예산 16억 여러분이 쓰라는 대로 쓰겠습니다’ 등)
- 참여예산위원장이 무보수로 상근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.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보수가 주어져야 보수를 주는 쪽의 기대치와 보수를 받는 쪽의 책임감이 긴장상태를 유지하여 위원회 책임자로서의 고유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
- 위원모집시 추천제 모집방식은 위원활동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보임. 공모와 추천제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중 하나일 것임

○ 차기 회의 일정 : 2017년 5월 22일(월) 17:00

- 안건 : 모니터링 사업 서면검토 및 봄봄축제 모니터링 평가 등

□ 회의장면



끝.